



# “한국불교, 왜 이렇게 됐어?”

‘지리산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대강백의 사자후.’  
갖난아기 시절부터 바로 위 누나를 믿어제치고 어머니 젖을  
꼭차지했던 유별난 외고집쟁이가 있다. 한국불교 근현대사 60  
년 행장을 중심과 핵으로 불 밝혀 온 고산 스님(75)이 그 주인공  
이다.

1945년 범어사에서 출가한 스님이 불교 정화운동이  
한창이던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집집 풍경과  
수행자들의 이야기를 170여 장의 근거사  
진과 함께 회고한다. 스님은 강원  
강사와 법사 포교사, 율사  
그리고 선사라는 특  
유의 전력으

로 이관(理判)과 사관(判判)을 오갔다. 이 회고록은 현 조계종 원  
로의원이자 전계대화상인 스님이 통영 연화도 연화사에서 반백  
년이 넘는 본인의 삶을 1600장의 편지지에 집필한 수행과 포교  
원력이 빚어낸 이력서다.

<지리산의 무쇠소>는 과거 조선의 억불과 일본의 강점기를  
막 벗어난 한국불교가 어떠한 과정으로 오늘날과 같은 신행형  
태에 이르렀는지 그 여정과 실명을 숨김없이 공개한다. 스님의  
거침없는 입담 가운데 눈에 띄는 몇 대목을 보았다.

“부모도 모시지 않고 산중으로 도망간 도둑놈들이.”

선방에만 틀어박혀 궁핍했던 이관승들과 달리 불교의식을 집  
전하며 풍요롭던 사관승들을 비구와 대처로 구분했던 당시를  
회상한다. 고산 스님은 어쩔 수 없이 ‘청암사 정화불사’를 강행  
했다고 털어 놓는다. ‘비구는 부처님의 정통이요 대처는 정통이  
아닌 비법’이라는 것이다. 이런 연유로 한 바람 정화가 끝나고  
비구승만 살던 범어사에는 쌀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  
했다. 급기야 120명 대중이 굶을 처지가 되자  
도움을 받기 위해 사방으로 탁발을 다  
녔다.

“자네! 서울에 와서  
조계사 주지를

지리산의 무쇠소 고산 스님 글 | 조계종출판사 펴냄 | 2만8000원



말아줘야겠네.”

고산 스님이 도심에서 사자  
후를 외친 것이 1972년이다.  
일요법회와 관음재일 지장재  
일 법회는 물론이고 청년회, 대학생회, 어린이 법회뿐만 아니라  
하루에도 서너 개 걸친 49재에 결혼식 주례까지 스님은 잠으로  
바빴다. 10년 강주 생활에 쇠약해진 몸은 주지 소임을 실행하면  
서 악화됐고 고심하던 끝에 <아함경>에서 ‘살찌우는 법’에 대  
한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다. “마음을 너그럽게 써라, 평소보다  
밥을 많이 먹어라, 평소보다 잠을 더 자라, 교만으로 잠난 채 하  
라, 게으름을 피우고 놀아라”라는 것이다. 이러한 비법으로 한  
달 만에 눈에 띄게 살이 찐 스님은 신도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 
되었다.

더욱이 전직 승려 절레 중광 스님이 송광사에서 방장 구산 스  
님과 난동을 피우며 법거랑하는 에피소드와 심지어는 스님의  
연애담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독특한 이력은 무겁고 어려운 기  
존의 범어집과 달리 명쾌함마저 안겨준다.

‘낮에는 가는 비가 날리고 밤에는 큰 눈이 오는지라. 깜깜하게  
어두움이 더하고 흑풍까지 떨어지도다. 낚자는 집안일을 알지 못  
하고 무쇠소는 한밤중에 동서로 달리네.’

쌍계사에서 설을 맞으며 산천과 도랑에 가득한 눈을 바라보  
던 설중심우(雪中毒牛)는 오늘도 금강과 같은 지혜의 빛을 찾는  
다.

가연숙 기자 ormlflower@buddhapia.com

## 여행에 관한 다른 이야기



### 다양한 장르를 넘어선 이야기

#### 라틴 그 원색의 땅에 입 맞추다

임명자 지음 | 다잇 펴냄 | 1만5000원

‘살의 모든 것은 필연이다.’

어디서나 가슴 부풀도록 황홀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낭만  
시인이자 한 남자의 열혈 아내로 살아온 임명자 씨가 설렘 가  
득했던 남아메리카 여행담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. 일산 덕  
양선원 신도인 여류 시인이 정열의 나라 남미로부터 전해 주  
는 사람과 삶에 관한 마음 탐방기이자 자기 고백서이다.

저자는 라틴으로 여행을 통해 내면의 자아와 씬 없이 대  
화 나눈다. 고대 마야 인들이 바라보던 달빛 속에서 달 빈 총  
만으로 가득한 자유를 느껴본다. 신비스러운 카리브 해안의  
물빛을 따라 모래밭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에 잠겨 보  
기도 하고, 이곳저곳을 거닐다 만난 작은 인연에 ‘전생 어디  
쯤에서 아닌 내생 어디가에서 다시 만날 것’을 기억하며 미  
소를 나눠보기도 한다. 눈부신 멕시코 예술이 뿜어내는 원색  
의 향연뿐만 아니라 삼바의 브라질, 다양한 인종의 뿌리로 풍  
요로운 문화를 가꾸는 쿠바를 돌아보며 형형색색을 내뿜는  
라틴의 빛깔에 정신없이 빠져든다.

이처럼 종교, 역사, 음악,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 
저자의 이야기는 여행서를 읽는 즐거움을 넘어 연민과 같은  
감성도 자극한다. 여행지에서 만난 소박한 사람들에 관한 이  
야기들은 하염없이 자아를 되돌아보게 한다. <라틴 그 원색  
의 땅에 입 맞추다>는 시인으로서 세 권의 시집과 음악 예세  
이를 펴낸 저자가 삶의 지천명(知天命)에서 선사하는 느낌표  
가득한 변주곡이다.

가연숙 기자

### 아름다운 자연을 그림으로 담아...

#### 아마플라의 유혹

남궁문 지음 | 시디안 펴냄 | 2만원

‘길이 알려주었다. 꿈은 그저 꿈이라는 것을...’

계절이 그 모습을 달리할 적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 
회색에 담은 저자의 독백이다. <아마플라의 유혹>은 붉은 아  
마플라가 가득 핀 들판의 추억을 좇아 불안마저 설렘으로 승  
화하며 여행한 화가 남궁문의 그림일기다. 여름과 겨울 편에  
이어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불리는 5월의 봄, 그  
세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.

저자는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으며 겪었던 소소한 일상과  
도 같은 여정을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수채화와 컴퓨터  
그래픽 이미지를 통해 선보인다. 그 길을 함께 걷는 친구는  
여행에 있어 배경이 되기도 하고 주제가 되기도 하면서 자연  
스럽게 솔직한 감정들을 주고받는다.

역사적으로 산티아고 길은 순례의 길이다. 이웃종교에서  
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곱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 
길이지만 현대인에게는 파울로 코엘료의 <연금술사>로 더욱  
친숙하다. 길 위에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들은 독자로 하여금  
두 나그네와 동행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. 아름다운 경  
치에 호들갑을 떨어보기도 하고, 갑갑한 새벽에 쏟아지는 폭  
우에 잠들지 못해 뒤척이기도 하면서 인생이 지닌 다채로운  
빛깔에 귀 기울이는 한 편의 로드무비(Road Movie)다.

2001년 여름 ‘산티아고 가는 길’을 걸은 경험을 바탕으로  
<아름다운 고행 산티아고 가는 길>을 펴낸 계절별로 세 권의  
책을 냈다.

가연숙 기자

## 여행길에 만난 사람들 이야기

예정된 우연 수해 지음 | 호미 펴냄 | 1만3000원

‘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길 위의 인연을 만나라.’

10년이라는 세월동안 계획된 일정 없이 틈나 나면 훌쩍 떠  
나곤 했던 비구니 수해 스님이 동아시아 여행길에서 만난 사  
람들 이야기를 한 권의 에세이로 묶었다. 부처의 뒤를 따르는  
수행자가 본성의 고귀함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의 방법으로  
택한 행선(行禪)의 기록이다.

<예정된 우연>은 독자로 하여금 ‘현재 삶의 중요성’을 일  
깨운다. 동아시아 전역을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며 그 과정에  
서 만난 수많은 인연과 다양한 해후를 나눈다. 눈앞의 모든  
현상이 내 자신의 마음이 비친 거대한 ‘허공거울’임을 알아  
가는 여정이다. 마치 자신의 마음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보기  
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듯하다. 일본, 대만, 티베트, 인도  
등지를 누비며 우주시인을 자칭한 스님은 이 모든 것이 기실  
‘예정된 만남’이라고 확신한다.

그런 의미에서 스님의 행적은 사람 뉘새나는 문학적 향기  
가 돋보인다.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은 독자를 아련한  
향취에 머물게도 하고, 예기치 않은 그리움을 선사하기도 한  
다. 여행자가 지닌 낭만과 고독이 경외감과 어울려 저자의 힘  
찬 발걸음을 따라 변주곡을 선사한다.

가연숙 기자

##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

순위	도서명	저자	출판사
1	아름다운 마무리	법정	문학의 숲
2	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	월호	마음의 숲
3	한편으로 읽는 빼알리경전	일야 역편	민족사
4	성철스님 회두참선법	원택	김영사
5	인파경	현담	선
6	행복한 사람들	김천	하안연꽃
7	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	대행	한미음선원
8	체험으로 읽는 티베트 사자의 서	강선희	불광출판사
9	아발로키테슈와라, 당신은 나의 연인	월호	운주사
10	당신이 주인공입니다	월호	불광출판사

※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(02)3672-7181



**기름값의 1/8 이하로 절약되는  
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**

국내개발 1호!

기름값 대비  
**80% 이상 절감**  
심야전기 대비  
**1/2 이상  
절감 효과**

국내특허 제0751485호  
세계특허출원 PCT/KR2007/006534

사찰, 포교당, 수련원, 교육시설, 복지시설, 호텔, 모텔, 펜션,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

**사찰·포교당·불교시설 상담 대원영!!**  
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·시공  
뛰어난 내구성, 30년 이상 반 영구적.

♣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! - 불자 혜택 -

**돌고래 슈퍼 에너지**  
공급원 :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-5  
상담전화: **1688-3346, 011-335-6389**  
www.superenertec.com

**정 정 공 고**

지난 2008년 12월 10일자 현대불교에 공고한  
속명 이상용 범명 능인 전 총무원장님과  
속명 이규상 범명 헤일스님에 대한  
공고내용은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 
총무원장님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직서를  
제출함에 이를 정정공고함

2009년 1월 2일

중양연수원장 법 전  
교육원장 지도 호계원장 해 봉 중앙선원장 명 등  
원 로 회 지도스님 일동 중앙총회회장 덕 신 운 암

상표등록 614981호, 디자인등록 0407120호, 발명특허 0554383호

수제화 **만행화**

방한용털신 조각무명 특무명

가죽 : 60,000원  
규격 : 215-290mm  
색상 : 회색, 검정

가죽 : 120,000원  
규격 : 215-290mm  
색상 : 회색, 자연색

**최고의 선물**

3-1편 사계절단화

가죽 : 90,000원  
규격 : 220-255mm  
색상 : 회색, 검정

퐁당동 99%  
지압식 깔창

가죽 : 80,000원  
규격 : 215-290mm  
색상 : 회색, 검정

지압깔창  
발명특허 41435  
퐁당동 99%  
가죽 : 15,000원

문의 및 주문전화 : 02)733-5715, 011-9000-5715  
입금계좌 : 농협 063-12-250427(구자민) 장

NAVER  
동양공예 인형화 관서  
인터넷쇼핑 만행화 검색해 보세요

◆ 본사, 전시장 :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(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)